

###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15>

“형제들이여, 바른 사람이 섰된 법을 설하면 섰된 법이 사람을 따라서 바르게 된다. 그릇된 사람이 정법(正法)을 설하면 정법도 그 사람을 따라서 그릇되게 된다. 다른 곳에서는 보기는 어렵지만 알기는 쉽다. 그러나 나의 이곳에서는 보기는 쉬워도 알기는 어렵다.”

兄弟正人說正法 正法亦隨正 邪人說正法正法亦隨邪 諸方難見易識 我者裡易見難識

사람이 문제이지 정법과 사법이 무슨 문제이겠는가. 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나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된다. 부자(父子)는 원래 사람을 해치는 독아이지만 의사의 손을 만나 법제를 당하면 냉병을 다스리는 훌륭한 약이 된다.

조주 스님은 사람이 바르다면 사법(佛法)도 사람을 위하는 법으로 바뀌어 버리므로 바른 사람에게 정법 사법을 특별히 구분 지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 설법이 매우 흥미롭다. 다른 곳에서는 보기는 어려워도 알기는 쉽지만, 조주 스님의 법석에서는 보기는 쉬워도 알기는 어렵다고 말한 부분이다. 선(禪)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는 것을 버리는 것이다. 본다는 것은 스스로의 성품이나 도를 보는 것을 말한다. 일명 견성(見性)이다. <조주록>에서도 끝없이 강조하고 있지만, 조주 선사는 바로 봄을 목적으로 설법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이 약간의 이해 능력만 있다면 조주의 설법을 듣고 도(道)나 자성(自性)을 즉시 봐버리고 만다. 그래서 조주 선법은 보기 쉽다. 그러나 교묘하고 그럴 듯한 지식은 그 어디에도 없다. 도는 아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다. 그래서 도는 알기 어려운 것이다. 오로지 한번 봐버림으로서 모든 것에 통하게 하려는 것이 조주의 선법이다.

학승이 물었다.  
“선(善)도 악(惡)에도 유혹되지 않는 사람을 독탈(獨脫)이라 해야 하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독탈하지 못한 거야.”  
학승이 물었다.  
“어찌하여 독탈하지 못한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선악 속에 있기 때문이야.”

問 善惡惑不得底人 還獨脫也無 師云 不獨脫 學云 爲什麼不獨脫 師云 正在善惡裡

궁극적인 도의 경지는 선악에 유혹되지 않는 것

## 정법 · 사법보다 사람이 문제

이다. 그래서 성인들은 한결같이 선악에 유혹되지 말라고 했다.

선과 악은 어느 쪽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선악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악은 시대적인 상황과 당시의 피해 정도를 보고 ‘악’이라고 규정해 말하나, 어느 때는 악이 선이 될 수 있다. 진정 도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선악에 유혹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유혹되지 않는다면 해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조주 스님은 설사 선악에 유혹되지 않는다 해도 해탈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딱 부러지게 단정하고 있다. 선악을 떠난다 해도 아직 선과 악의 경계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주 스님의 이 사상은 부처님의 <금강경>사상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 <금강경>의 사상대로라면 선악을 떠났다는 생각이 떠나야 진정한 떠남이다. 즉 마음 깊은 곳에서도 선악을 떠났다는 생각 까지도 버려야 하는 것이다. 선악이라는 개념도, 이름도, 떠났다는 생각이 철저히 없어져야 떠남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선악 속에 있는

야기 속에 불교의 핵심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조주 선사는 “특별함은 없어. 있다면 ‘주전자가 탄다’는 것과 같은 것들 뿐이야.” 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다. 주전자를 너무 오래 달리면 탄다는 말이야말로 이제까지 조주가 말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학승이 물었다.  
“세계가 변하여 암흑이 된다면 그때 이 몸은 어느 길로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그런 것은 짐치지 않아.”  
학승이 물었다.  
“짐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발가는 노예야.”

問 世界變爲黑穴 未審此箇落在何處 師云 不占 學云 不占是什麼人 師云 田庫奴

태양이 식어 암흑이 된다면? 세계가 불바다가 된다면? 지구가 무너진다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하여, 혹 스님은 정답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선사는 그러한 것과 무

관하다. 혹은 스님을 신통한 사람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수행자는 신통과도 무관하다.

불교는 존재하는 것은 언젠가 무너진다는 절대적 진리를 설하고 있다. 따라서 지구도 언젠가 무너지고 만다. 자기중심적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지구가 무너진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궁금해 할 수도 있겠지만, 지구가 무너지는데 사람들 어떻게 제대로 보존되겠는가? 불교는 그러한 때에 어떤 부처님이 혜성처럼 나타나 중생을 구원하여 다른 안락의 세계로 데려간다는 식의 허무맹랑한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지구도 멸망하고 사람도 반드시 죽는다.

이러한 절대적 법칙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종교가 불교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조주 스님이 자신을 발가는 노예로 표현한 것이 예사롭지 않다. 조주 스님은 적어도 총림의 방장이고 나라에서 나이가 가장 연로한 스님이므로 대내외적으로 부처님 이상 가는 존경과 존칭이 붙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선사 스스로는 나는 일개 ‘발가는 노예’일 뿐이라고 말한 것이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에 그대로 들어맞는 말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 선 · 악에 유혹되지 않아야 진정한 모든 존재하는 것은 언젠가 무너진다

것이 된다.

한 비구니 스님이 물었다.  
“이제까지 가르쳐주신 것을 떠나서 화상께서 가르침을 주십시오.”  
조주 스님이 허를 차면서 말하길,  
“주전자가 탄다.”  
그 스님은 주전자에 물을 따라 붓고 다시 말했다.  
“화상께서 제발 대답해주시오.”  
조주 스님은 “하하”하고 웃었다.

尼問 離卻上來說處 請和尚指示 師咄云 俄破鐵瓶 尼將鐵瓶添水來 請和尚答話 師笑之

선사는 질문에 대해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기 때문에 전광석화(電光石火)와 같은 명석한 머리로 즉시 알아들어야 한다.

이 선문답도 이제까지 내려 주신 가르침을 제외하고 좀 다른 가르침을 달라고 한 것에 대해 조주 스님은 질문하자마자 바로 답이 나왔다. 그것은 “주전자가 탄다”라는 말이다.

선사가 말한 의도를 어려움 속에서 찾으면 안 된다. 선은 항상 일상사에 답이 있다. 조주 선사는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 이

###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관심문 20

## 일곱 가지 법으로 단장하라

#묵욕하는 법

또 여쭙기를 “<온실경>에서 말씀하시길 ‘스님들을 묵욕시켜 드리면 한량없는 복을 얻는다’ 했는데 마음을 관(觀)하는 것으로 상응이 되겠습니까?” 하니 대답을 하셨다.

“스님들을 묵욕시켜 드린다는 것은 세간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의 일로 진실하고 위없는 가르침을 비유하신 것이며 은밀하게 일곱 가지 사물을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 일곱 가지를 말하자면 첫째는 깨끗한 물이고 둘째는 불을 피우는 것이고 셋째는 비누며 넷째는 양지(楊枝·치아를 닦는 도구)고 다섯째는 깨끗한 재며 여섯째는 우유로 만든 기름이고 일곱째는 속옷이니라. 이 일곱 가지로 묵욕하고 단장하면 삼독과 무명과 때와 더러움을 없앨 수 있느니라.

일곱 가지 법이라는 것은 첫째는 법과 계율이니라. 거짓과 허물을 부드럽게 씻어내는 것이 마치 깨끗한 물로 때와 먼지를 씻어내는 것과 같기 때문이 아니라, 둘째는 지혜인데 안과 밖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불을 피워 물을 따뜻하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며, 셋째는 분별인데 나쁜 마음들을 가려내어 버려 버리는 것이 비누로 끈적거리는 더러움을 씻어내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며 넷째는 진실인데 은갖 거짓말을 끊어버리는 것이 양치질을 하는 나무로 입안의 냄새를 없애는 것과 같기 때문이니라.

다섯째는 올바른 믿음인 데 선을 행하고 악을 끊지 않는 결의를 하면 다시는 걱정이 없는 것이 깨끗한 재로 문지르면 풍병을 피할 수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며, 여섯째는 호흡을 조절하는 것인데 역센 마음을 누르는 것이 우유로 만든 기름으로 피부를 윤택하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며 일곱째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인데 나쁜 짓을 누우치는 것이 마치 속옷이 추한 일품을 감추어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니라.

이상 일곱 가지가 모두 경전 속의 비밀한 가르침인데 요즈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니라. 온실이라는 것은 곧 몸이니라.

지혜의 불로 깨끗한 계율의 탕을 데워서 몸속의 진여불성을 묵욕시키되 일곱 가지 법으로 스스로를 단장하라는 것이니라.

당시의 비구들은 총명하고 지혜가 뛰어났으므로 부처님의 뜻을 알아 설하신 대로 수행하고 공덕을 성취하여 모두 다 성인의 지위에 올랐는데 지금의 중생들은 어리석고 우둔하여 이 일을 알지 못하고 세간의 물로 육신을 씻는 것으로 가르침대로 하는 것이라 하니 그 어찌 잘못이 아니겠는가.

또 진여불성은 세속의 모습이 아니고 번뇌와 마음을 더럽히는 것은 본래 모습이 없는데 어찌 형체가 있는 물로써 번뇌가 있는 무명의 몸을 씻을 수 있겠으며 사리에 맞지 않으니 어떻게 도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항상 이 육신은 탐욕으로 인하여 부정하게 생겨난 것이라 냄새나고 더러운 거시 뒤섞여 안락하게 득한 것이라고 관(觀)할지니라.

이 몸을 씻어 깨끗하기를 버란다면 진흙을 씻어 봐야 깨끗해 질 수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것으로 알 수 있듯이 곁대기를 씻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님을 분명히 알지니라.”

[원문]

又問曰 溫室經 云洗浴衆僧 得福無量 若有觀心 可相應 不答曰 垢染衆僧者 非說世間有爲之事也 此假諸事 譬喻眞宗 隱說七事 其七事者 一者淨水 二者燃火 三者豆 四者楊枝 五者淨灰 六者膏 七者內衣 用此七法 沐浴莊嚴 能除三毒 無明垢穢 其七法者 一者法戒 洗滌愆非 猶如淨水 去諸塵垢 二者智慧 觀察內外 猶如燃火 能溫淨水 三者分別 揀棄諸惡 猶如豆 能淨垢 四者眞實 斷諸妄語 猶如楊枝 能消口臭

[해설]

일곱 가지의 참 뜻을 알게 되면 탐 · 진 · 치 삼독과 어리석음에서 벗어 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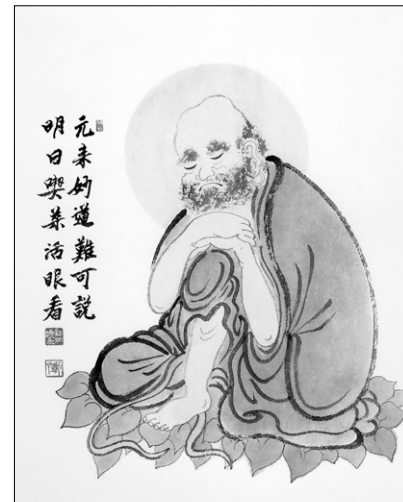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보는 견해를 ‘법(法)’이라고 합니다.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은 바로 탐 · 진 · 치 삼독을 끊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 법으로 묵욕하고 단장하며 참 뜻을 이해하게 되면 삼독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법이란 항상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마음을 두고 정진을 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하는 분이 우주와 하나고 지장보살 하는 그 놈도 우주와 하나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알고 해야지 분별심이 끊어지는 겁니다. 나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분별심이 일어나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정진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과 허물을 부드럽게 씻어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짓말과 남의 허물을 보는 부분도 결국 나와 너를 분별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정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정진하는 것이 깨끗한 물로 때와 먼지를 씻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 청주 해은사 주지



동성 스님 작



## 전통불교천지대왕종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헐자. 반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앙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들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발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려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끌어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인 석연 대종사께서 전법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책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 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흥익인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도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려고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중하여 선포하니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회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량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연시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리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회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명가, 신발, 만신님들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 충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중위원 : 지선, 무생, 무풍, 천풍



#### 입중 및 입회원서 접수 :

본중 총본산 수련도장 불탑사 의 종단에서 지정한 교구청 및 특설사무처

#### 동참 특전 (소정의 서류제출 완비하고 등록된 분에게는)

- 본 종단 의식교전 및 종헌 준법 제공
-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재산관리 세무회계를 주선
- 체계화된 교육으로 종교지도자로 양성함
- 사찰, 사암, 포교당등록증, 법위증, 사증 등을 교부
- 종단의 각종 회의에 참석 특전, 중요임원 출마권과 선출권 부여함
- 행정, 교육, 운영 관리에 뜻 있는 분 특별우대함